논어 2편 위정 7장 · 원문·풀이

子游問孝。子曰：「今之孝者，是謂能養。至於犬馬，皆能有養。不敬，何以別乎？」

독음 · 자유문효 자왈 금지효자 시위능양 지어견마 개능유양 불경 하이별호

쉬운 풀이(요약) · 부모를 먹여 드리는 것만으로 효도가 되지는 않는다. 공경이 없다면 동물을 기르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游 헤엄칠 유 유 / 問 물을 문 문 / 孝 효도 효

曰 가로 왈 / 今 이제 금 금 / 之 갈 지 / 者 놈 자

是 이 시 시 / 謂 고할 위 위 / 能 능할 능 능 / 養 기를 양 양

至 이를 지 지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犬 큰 개 견 견 / 馬 말 마 마

皆 모두 개 개 / 有 있을 유 / 不 아닐 불 / 敬 공경할 경 경

何 어찌 하 하 / 以 써 이 이 / 別 나눌 별 별 / 乎 어조사 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